

“바다 안전 핵심은 선제 대응…AI 적극 활용”

‘취임 1주년’ 이명준 서해해경청장

사고 원인 ‘안전수칙 미준수’ 대응 ↑
부산대·서울대와 AI 기술 공동 개발
소통·협업 중요…소통문화 조성 역점

“바다 안전의 핵심은 선제 대응입니다. AI로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명준(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이 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취임 이후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어선의 노후화, 어선원 전문성 저하, 안전수칙 미준수, 무허가 양식장 확산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어선의 화재 취약성과 불법 증·개축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근본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관행 정착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양식장은 가항 구역 축소에 따른 해양사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AI 기술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항공 영상을 기반으로 양식장의 위치와 적법

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apping 기술을 부산대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불법 어구 탐지, 적조 예측, 해양오염 유출 확산 분석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대와는 어선의 유형과 불법 여부를 자동 식별하는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해당 연구진은 관련 기술로 DATA·AI 분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I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실무 적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월 부산 앞바다 화재 사고 수색 과정에서 AI로 실종자의 침강 속도를 분석해 예상 위치를 특정하고 추가 구조에 성공했다.
서해해 해상풍력단지 확산에 대응해 선박 항적 빅데이터를 분석할 전담 T/F팀을 꾸려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위치 확인이 어려운 레

저보트 관리를 위해 ‘바다내비’ 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도 강조한다. 그는 “현장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내부 소통 문화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평상시 꾸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단정 경연대회, 우수 파출소 평가, 상황실 운영, 특공대 전술, 해양오염예방 경진대회 등 본청 주관 각종 업무 경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 청장은 “사건·사고에 완벽히 대응하려면 평소 장비 점검과 인력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 준비로 최상의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구승룡 국제키와니스 한국지부 총재
13년째 모교 전남대에 발전기금 기부

13년째 전남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해오고 있는 구승룡 (사)국제키와니스 한국지부 총신명예총재가 최근 1천만원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6일 전남대에 따르면 구승룡(사진 왼쪽) 총재는 지난 2012년 3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학교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동참, 누적 기부액이 4천886만3천200원에 달한다.
구 총재는 김남주총, 디지털도서관 등 전남대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 조성에 꾸준히 힘을 보태며 진정성 있는 기부 문화를 실천해 왔다.
그는 1979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총동창회 고문, 일곡지구 회장, 동창장학회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교 72주년을 기념하는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도 선정된 구 총재는 “학교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며 “의미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매일신문, 서머힐지역아동센터 NIE 1차 교육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4일 광주 북구 서머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NIE(신문활용교육) 1차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이들에게 신문의 가치와 활용법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교육은 ‘신나게~ 재밌게~ 함께 만드는 학교신문·가족신문’이라는 교재를 활용해 이뤄졌다. 학생들은 뉴스가 되는 사안을 파악하고, 뉴스 선

택의 기준을 이해하며, 기사 작성의 기초와 특성 등 신문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했다.
교육에 참여한 오승훈(효동초 5)·오정훈(효동초 3)·박지원(효동초 3)·천운호(효동초 3) 학생은 신문 만들기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공모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희준 기자



전남자치경찰청, 중·고생에 불법촬영 탐지카드 배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목포마리 아회고등학교에서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경찰청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탐지카드 전달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청소년 치안인식 고취’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협력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중·고등 학생 9만4천여명에게 불법 촬영 탐지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신용카드 크기의 휴대가 간편한 불법 촬영 탐지카드는 청소년이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법 촬영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예방도구다. 청소년 스스로 범죄 예방활동을 펼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청소년 스스로가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다면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을 지킬 능력을 갖춘 이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 설명회 성황

해양경찰청장비청은 “최근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2층 강당에서 ‘2025년 해양경찰청장비청 일반직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자리로, 채용 자격 요건을 갖춘 목포해양대학교 관련 학과 전공학생 24명을 비롯해 현장 종사자 등 총 320여명이 참석했다.
대강당 279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으며, 해양경찰청장비청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안교진 해양경찰청장비청장은 기관의 역할을 소개하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채용 공고는 인사혁신처의 승인이 나오는 이 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농어촌공 담양지사, 담양호 일대 ‘쓰담쓰담’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담양호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김건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를 비롯해 직원 20명과 담양호 새마을양식계 회원 15명, 서원신 농지은행관리부장, 김태운 농지은행관리부 과장 등이 참여해 저수지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쓰담쓰담’은 저수지 돌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으로, 공사의 대표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환경 보호에 참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광원 담양호 새마을양식계장은 “공사와 이해관계자가 협업체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건경 담양지사는 “담양호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라며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담양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산구의회, 신중년 일자리 지원 정책 간담회

광주 광산구의회는 “최근 신중년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는 윤혜영 의원 주재로 열렸으며, 명진송정동초등학교 교장,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 이민철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및 공무원, 언론, 시민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신중년은 퇴직한 뒤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살아가는 과도기 세대대로 50~64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신중년의 고용 위기, 경력 공백, 양육·부양 부담, 노후 준비 등 여러 난관에 대해 공유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창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유연근무 형태 도입을 비롯해 광산구 핵심 정책인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정책과 신중년들의 일자리 연계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윤혜영 의원은 “모아진 의견들을 바탕으로 신중년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광주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매칭데이’ 운영

광주시는 6일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와 골목형상점가 식당 이용을 통해 열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매칭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행정국 5개 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지난 4일 첫 매칭데이를 진행, 점심시간에 서구 쌍학로상인회, 5·18역사골목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 식당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식사를 했다.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정부의 비상경제점검TF와 연계해 ‘골목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골목경제상황실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236개 상권에서 1대1 매칭을 통해 장을 보거나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소비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 휴무를 확대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가수희 기자

전남도, 공직자 대상 도민 홍보역량 강화 교육

전남도는 지난 4일 도청 왕인실에서 공직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남도 홍보아카데미를 열어 언론관계 정립, 정부광고 매체전략 수립, 누리소통망(SNS) 활용 등 실무에 필요한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교육은 전남도와 시·군 홍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매체가 빠르게 확산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도민 홍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전문가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도와 시·군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기로 했다.



김규용 대변인은 “홍보는 단순히 알리는 일을 넘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적 활동”이라며 “홍보가 잘 이뤄져야 소통이 원활해지고 중앙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